

## 정부 · 기관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 IFAD 식량안보 공동협력  
IFAD로마 본부서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 현장교육사  
업’ 약정 체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식  
량안보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김종진 통상정책관은 지난 10월 18일 케빈 클리버  
IFAD부총재와 IFAD로마 본부에서 ‘개도국 농  
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력사업은 농식품부  
와 IFAD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가 갖고 있는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  
유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  
역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 기술교육과 역량강화에 올해부터 4  
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농장경영과 마케팅 교육  
등 개도국 농업인들의 실질적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  
는 녹색혁명, 산림녹화, 농촌종합개발 경험 등도 전  
수하기로 했다.

농수축산 최상희 기자 2012. 10. 24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및  
구제역·AI 재발방지 다짐대회’ 개최



추위가 시작되면  
서 검역관련기관  
들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

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0월 18일 강원 속  
초시 소재에서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장 등 가축  
방역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및 구제역·AI 재발방지 다짐대  
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역 관계관들은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  
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국내 축산업 발전과 국  
민보건을 위해 구제역·AI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며, 최고 전문가로서 방역기술 습득 및 능력개발  
에 전력하고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효율적  
이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정확한 진단·조사에 노  
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AI 예찰방법 개선 방안, 가축의 보툴리눔 독소증 발생동향 및 대응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함께 가졌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시 농장방역실태 점검 및 월 2회 전화예찰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질병 유입방지 및 조기 검사를 위해 주로 시료채취와 농장방역 실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7만 6천 농가, 131만9천 여 마리에 대해 가축질병 조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했으며, 31만2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질병이 의심되는 3,840건의 가축질병예찰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 이중 1,389건이 질병으로 판정됐으며, 검색된 질병 중 241건이 소 브루셀라 등 법정가축전염병 의심축으로 밝혀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달까지 총 343만6천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해 2만700여 건의 의심축 임상증상을 발견했으며, 69만2천여 톤의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방역본부는 내년 5월까지로 예정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고취 노력과 함께 농장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견 시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축산 박유신 기자 2012. 10. 25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기술 보급에 활력을 불어 넣다  
농촌진흥청 카파치(KAFACI), 우간다에서 워크숍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 협력 협의체(이하 카파치 KAFACI)는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우간다 엔테베에서 우간다 농업연구청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농업기술 보급사업 전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카파치 17개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농업기술 보급 담당자들이 참여해 자기나라의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각 국가에 맞는 보급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기술보급 방법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 농업지도포럼(AFAAS), 우간다 새천년 마을개발 사업, 가나안 농균학교 담당자들이 세계 농업기술보급 사업의 체계와 동향, 한국의 농업기술보급 시스템과 농업 발전을 아프리카에서는 종자보급과 토양관리 및 우간다 마을개발 사업 사례 발표로 기술보급 사업의 문제점과 성공요소에 대해 소개하고 토의한다.

현재 아프리카의 공공분야 농업기술 보급체계는 국가재정과, 외부 원조가 줄어들고, 민영화·분권화·지방화의 여파로 효과성을 상실해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워크숍에서 나온 각 나라별 효율적인 농업기술 보급방안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파치 아프리카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서세정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아프리카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보급 모델과 개발된 선진 농업기술들이 아프리카 지역 곳곳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말라위, 짐바브웨, 가봉, 카메룬,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세네갈, 모로코, 튀니지, 수단, 코모로 등 17개나라 기술보급 관련자 50여 명이 참가한다.

## 국립축산과학원

### 양질 조사료 재배 위한 ‘접이식 진압장치’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나라 농경지에서 사료작물을 파종한 후 또는 월동 전·후에 동해피해를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진압기인 ‘접이식 진압장치’를 개발했다.

파종 후 진압은 건조의 피해를 막아 생산성을 올리는데 좋다. 특히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의 경우 파종 후 반드시 진압을 해주어야 겨울철 동해와 건조의 피해를 막아 조사료 생산성을 약 15% 증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압장치는 크기가 작아 소규모 면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면적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포장 간 이동이나 도로 운행 시에 이동은 가능하지만 도로 파손의 위험이 크고 소음이 발생하며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

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접이식 진압장치’는 이동 시에 양쪽 로울러를 접어서 이동하고 작업 시에는 펼쳐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대 면적을 진압할 수 있어 작업효율이 높고 운행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이동성이 뛰어나다.

접이식 진압장치는 2010년 특허출원을 실시해 올해 11월 특허 등록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국내 업체에 통상실시를 체결함으로써 10월 말부터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지희정 박사는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은 진압장비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 어린이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 비만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품을 어린이들이 제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음료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 비만율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초·중·고등학생 비만율(교과부) : 11.2%('08)

→ 13.2%('09) → 14.3%('10)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품 구입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가급적 구매를 자제해야**

카페인을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 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데다 최근 시험 기간 중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초등학교들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 당 2.5mg으로,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75mg에 해당되어 에너지드링크 1병(62.5mg)만 마셔도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근접하게 된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고열량·저영양식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어린이 기호식품 :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 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탄명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제외), 즉석섭

취 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가 해당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스마일마크(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다.

※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스마일마크 부착 식품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현재 70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을 이용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제품 바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장난감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어린이의 상품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장난감, 게임머니 등 미끼상품을 같이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장난감이나 기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방송, 라디오, 인터넷) 금지

식약청은 이와 같은 어린이 안전 먹을거리 구매 요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 구매 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나라(<http://www.food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국제농업박람회서 축산물등급제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의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12국제농업박람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시관을 운영, 축산물등급제와 쇠고기이력제 등 홍보 행사를 전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홍보관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축산물의 품질비교 전시, 양축농가를 위한 등급판정결과 상담센터 운영, 쇠고기이력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사용자들이 축산정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산유통정보센터(m.ekapepia.com) 붙임 캠페인도 실시했다.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2012. 10. 24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농장HACCP 자체지도조직 간담회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지난 10월 11일, 일선에서 농장HACCP을 지도하는 '자체지도조직(농·축협 등)'과의 간담회를 중부지원(대전)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사육단계HACCP 지도 과정상

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HACCP 평가기준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로, 충남·북에 소재한 7개 농·축협 소속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준원의 '12년 현장심사 및 평가사항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설명, 괴산증평축협 소속 김관식 팀장의 농장HACCP 지도 시 경험한 농장 HACCP에 대한 인식변화 등 우수사례 발표를 실시하였다.

이어 실시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농장에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가축사육단계HACCP 적용을 위해 소규모 농장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 줄 것 그리고 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어 번역HACCP 자료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타 지도조직의 지도방법 등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간담회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준원은 "농장HACCP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체지도조직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농장 HACCP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또한 이번 간담회시 개진된 의견들은 농장HACCP 심사 업무에 반영하고 정책 건의 시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aT · 어린이재단 사회공헌활동 ‘실천’ 쌀 90포 어린이재단에 기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최근 ‘초록우산·aT 상생나눔 직거래

장터’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실천에 나섰다. 초록우산·aT 상생나눔 직거래장터는 aT가 개발한 새로운 ‘한국형 상생·나눔’의 직거래 모델이다. 참여 농어업인은 판매액의 2.5%를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금은 참여 장터의 지역별 어린이재단을 거쳐 해당지역의 재단으로 환류 기부하게 된다.

aT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초록우산·aT 상생나눔 직거래장터에서 구매한 쌀 90포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기부물품은 태풍피해가 극심한 전남 강진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될 계획이다. aT는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판촉지원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농수산물 정례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어린이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개발해 상생·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유통신문 김지연 기자 2012. 10. 05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구미 불산피해 지역주민에 생필품 전달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월 9일 불산 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강을 농협중앙회 상무가 직접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전달한 물품은 생수(5t 트럭 한대)와 라면 600박스 등 모두 1,600만원 상당으로 임시 대피소로 옮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전달식에서 이 상무는 피해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농협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 시장은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구미 농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 움직임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고 발생 반경 3km 이내 모든 농작물은 반출 금지와 폐기 처분 등을 하는 만큼, 구미의 타 농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유건연 기자 2012. 10. 12